

## 아낌없이 주는 삶

김영숙  
본회 제2 감사



**은** 우리가 검푸르게 짙어  
진 계절입니다. 오늘  
도 무더위 속에서 수고하시  
는 협회 회원 여러분들께 진  
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  
도 바오로는 로마서 '靈 안  
에서의 새로운 삶'에서 “우

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  
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로마서 8장  
17절).” 라고 하셨습니다. 호스피스가 소명인 우  
리들은 치유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니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각자  
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하고 지혜를 모으는 호스  
피스 활동을 통하여 사랑의 씨앗을 가슴에 키위  
야 할 것입니다.

15년 전 제가 하와이의 한 유서 깊은 호스피스  
센터에서 연수를 받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환자와 그의 가족들을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돌  
보며 지지하는 호스피스 스태프들의 모습이 얼마  
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는지 세월이 지난 지금도  
저의 기억에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환자와의 사  
별을 며칠 앞두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휴가를 겸  
해 찾아와 장미빛 드레스를 입고 입맞추며, 애  
완견을 품에 안겨주는 등 마치 '잔칫집에 초대된  
손님들' 같이 따뜻한 미소로 격려하며 가족간의  
사랑을 각인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하면서,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적인 품위를 높여 삶과 죽  
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호스피스의 진정한

의미임을 바로 거기 그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었  
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현실은 임종  
직전이 되어서야 겨우 마지못해 호스피스 병실(1인  
실)을 찾을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  
이었으므로,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리면서 가  
족에 둘러 쌓여 행복한 모습으로 평화로운 임종  
을 할 수 있는 그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요.

다행히 우리나라도 지난 2003년 3월부터 호스  
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관련법을 만  
드는 등 정부가 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안고 지  
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호스피  
스 시대가 개막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제 머지않  
아 우리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호  
스피스 센터가 곳곳에 마련되리라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일본 작가 에모토 마사루는 그의 저서 ? 물은  
답을 알고 있다 ?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란 글자를 보여준 물은 깨끗한  
육각형 결정을 만들고, '사랑과 감사'란 글자를  
보여준 물은 기뻐하면서 꽃처럼 활짝 피었는데,  
이에 반해 '망할 놈'이란 욕을 보여준 물은 제멋  
대로 흩어져 찌그러져 있음을 보면서 인간이 과  
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자연의 순리라고  
생각하면서, 고통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를 돌보는  
우리들은 자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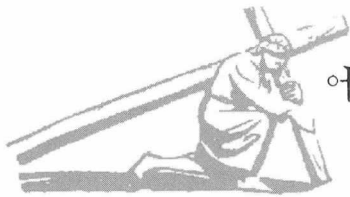
합니다' 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봉사할 때에 진정한 하느님의 도구로써 쓰여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인 구 상의 '오늘도 신비의 샘인 하루를 맞는다' 라는 시를 저는 자주 떠올리며 묵상하곤 합니다. 하루의 삶이 신비일 때 호스피스 활동은 바로 그 신비를 실천하는 고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위치에서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여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환자들의 언어를 경청하고 동감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측은지심을 발휘하여 호스피스 돌봄에 다시 한번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거듭납시다. 불계 물든 노을을 보고 '하느님의 얼굴빛 같이 너무 고우시구나, 하신 어느 어머니의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서 말입니다.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 어느 에이즈 환자의 기도

“내 두통이 참기 어려울 때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실 때 받으신 고통과 비교했고  
 통증이 나의 등으로 가면  
 채찍질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했고  
 내 손이 아파지기 시작하면  
 양손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과 비교해 보았다.  
 나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고통을 그리스도와 나누며 거기서 용기와 힘을 얻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비탄의 표정보다는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고 있었다.